

한·러간 LED조명산업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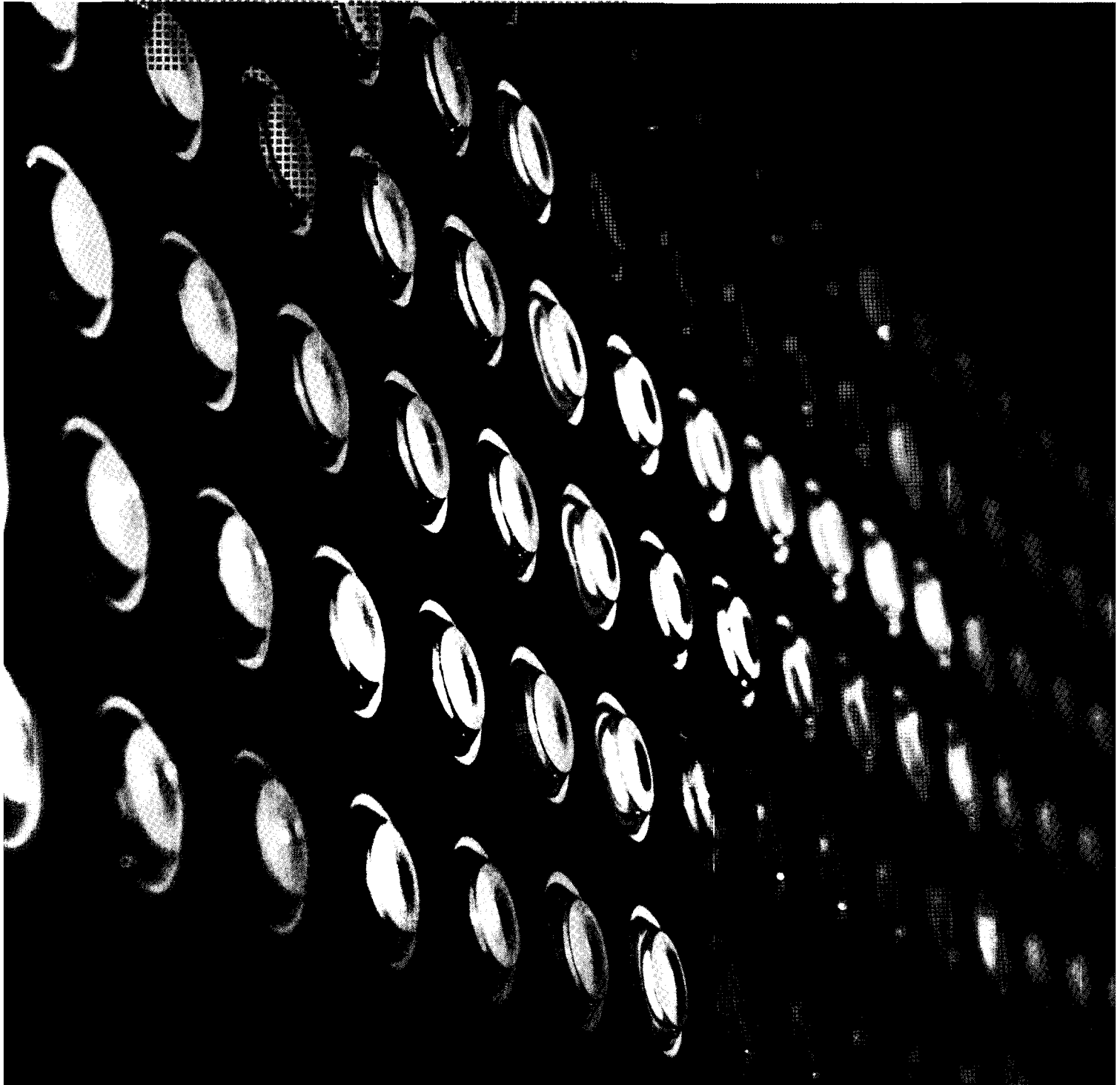
# 국내 LED조명업체 러시아 진출 길 열렸다

한국광산업진흥회,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청과 한·러간 LED조명산업 협약체결  
모스크바 외곽 제4순환도로 LED가로등 설치 프로젝트 국내 업체 참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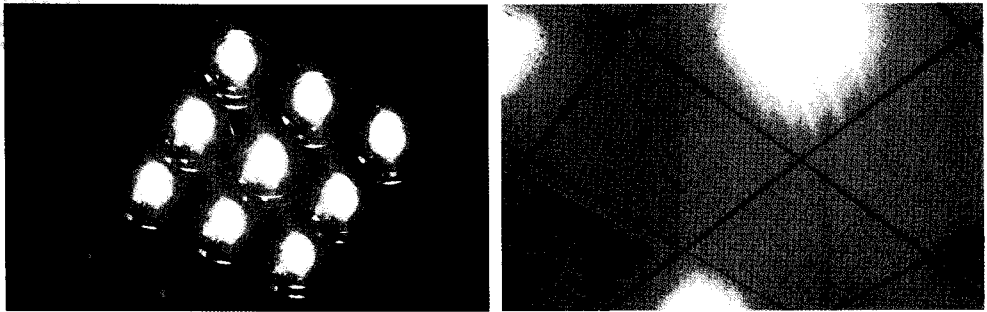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14일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청과 한·러간 LED조명산업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양국 정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간 LED조명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양국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간 LED조명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양국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간 LED조명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양국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간 LED조명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양국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간 LED조명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양국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러시아 현지 LED조명 설치사례 및 현황 - ROSEL회의실 내 ▼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는 지난 7월 12일 조규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지식경제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한국광기술원 등과 함께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러시아에 교류 협력단을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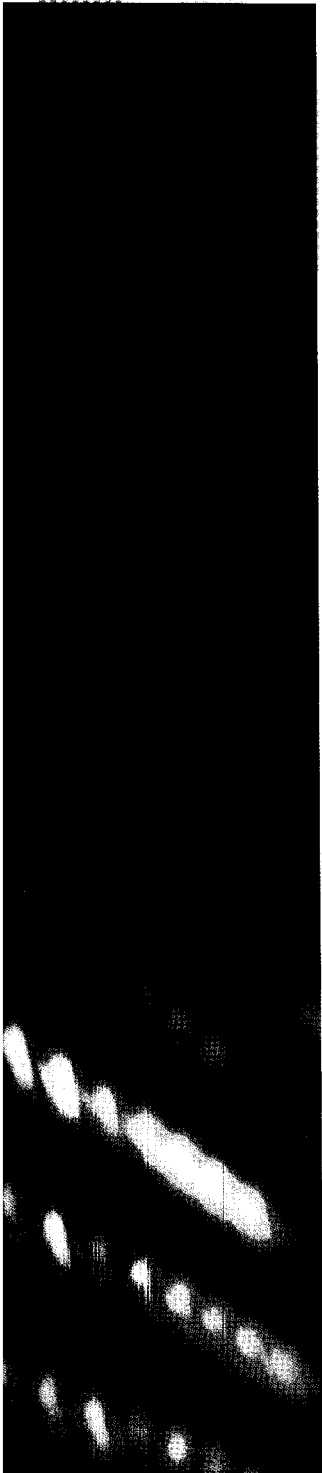
이들 방문단은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청(청장 Ivanov Timur Vadimovich)을 방문해 러시아 연방정부 내 LED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LED조명 표준화 공동 협력, LED기술·인력·정보 등 교류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한-러간 LED조명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을 위한 전략으로 지난 2009년 12월 신설됐으며, 에너지부의 에너지절감정책 실질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러시아 에너지청과의 MOU 체결에 따라 양국간 실질 협력을 수행할 국제공동협력센터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그린빌딩 지정 및 백열등 대체용 LED 도입과 잉곳·웨이퍼 등 LED원자재 공급, 기술·인력·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포럼·세미나 공동 개최, 제3국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모색, LED식품공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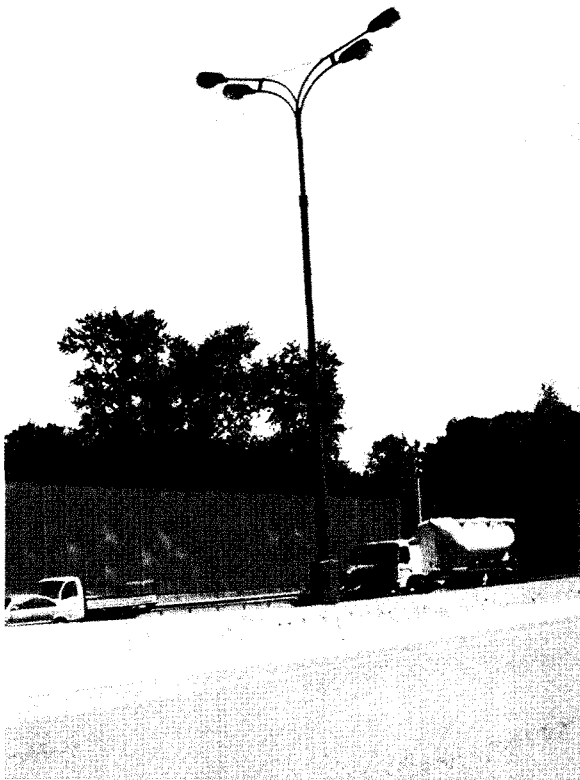
이로써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던 관계가 에너지 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협력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LED조명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 한국의 LED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한-러간 추가 프로젝트 추진시 우선권을 갖는 국내 LED조명산업 국제화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올 하반기 러시아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2010년 모스크바 외곽 제4순환도로 LED가로등 설치(1만 2,000개 소요, 사업비 100억원 추정)사업에서 국내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국내 LED 기업들이 모스크바 외곽도로 일정구간에 LED 가로등을 시범 설치해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 실시 및 향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간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이 공동으로 LED시범보급사업을 추진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실증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LED조명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개발이 미비한 극한 환경에서의 LED제품 적용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제품들이 LED교통 신호등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LED조명분야의 경우, 극저온기후에 따른 환경분석 및 대응제품 개발 등이 미비한 수준이며 틈새시장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러시아 에너지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국내 LED기술 및 표준화 노하우, 광산업클러스터의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여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등의 경쟁국과의 LED분야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변국과 북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다.

또한, 이번 러시아 방문단은 국영기업 'ROSEL'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운호 대사)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LED기업과 현지 LED기업간 협력 방안 모색하였다. 이운호 대사는 에너지 분야(러시아 전력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관리분야 등)는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LED분야(LED보급사업 및 기술협력)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을 통해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동 후속조치로 이바노프 러 에너지청장은 지난 7월 23일에 방한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협의를

가졌으며, 향후 9월에 각 분야별 실무진을 구성하여 재방문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영기업 'ROSEL'에서는 광산업클러스터내 각 연구소들(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전자 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 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기술실용화본부)과 공동 국제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제안하였으며, 9월 방문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ROSEL은 1997년 7월 설립된 러시아 국영기업으로 반도체, 레이저, LED, 원재료, 광학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이미징센싱 제품 등을 생산한다. 연매출 2,170억원에 고용인력 2,000여명에 달하며, 향후 80여 기업 통합 지주회사로 등록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20개 이상의 중요 기술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LED표준화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LED 조명의 KS표준(현재 8종)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내 표준화 추진시 상호협력을 통해 러시아 LED

# PHOTONICS



- ① 러시아 현지 일반 가로등 현황
- ② 러시아 현지 일반 가로등
- ③ 러시아 현지 LED 생산기업 방문
- ④ MOU체결전 에너지청장과의 협의
- ⑤ 국영기업 ROSEL방문 및 임원 면담
- ⑥ 러 에너지청 실무자와의 협의
- ⑦ 한-러 LED산업교류협력 MOU체결 사진이며, 왼쪽부터 한국광산업진흥회 조규종 상근부회장, 러시아 에너지청 Mr. Ivanov Timur Vadimovich청장
- ⑧ 대사관 방문 및 다사님 면담



표준화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000년 광주지역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계획에 의거 광산업육성의 민간추진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인 회원사를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산업사업자단체로 설립된 이후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지난해 '광IT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사업' 및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마케팅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LED선도 응용기술의 협력을 모색하던중,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러시아 에너지부를 방문하여 1차 협의를 통해 구체화됐다. 이어 지난 3월 한국광산업진흥회 초청으로 러시아측 방문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LED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협력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 바 있다.

금번 방문시, 한국정부를 대표로 지식경제부는 한-러간 협력시 정부지원 협력방안 협의, 기술 및 관세장벽,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양국간 정책지원책 세부사항을 도출하여 양국간 탄소배출

저감정책 협력방안 등 모색하였으며, 호남광역경제권선도 사업단은 양국 기업간 선도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협의와 LED응용분야, 인력교류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기업과 러시아 현지 기업간 기술교류 협력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종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올해 11월 11일~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한-러간 LED 교류협력이 구체화 될 수 있고, 한-러 정상회담시 세부 상호 실현방안 모색하여 지속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상할 계획"이라며 "회원국간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가 될 금번 LED조명산업 교류협력이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내 LED업계의 국제화 진출 초석이 되고, 회원사에 실질적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